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학승이 물었다.
“눈먼 거북이가 바다 위에 뜬 나무의 구멍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우연한 일이 아니다.”
問 盲龜值浮木孔時如何 師云 不是偶然事

〈잡아함경〉 〈열반경〉 등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대해(大海)에 눈먼 거북이가 살고 있었다. 이 거북이는 수명을 모를 정도로 오래 살았다. 한 번씩 숨을 쉬러 바다 표면에 올라가는데 그때 마침 구멍 뚫린 나무판자가 떠다니다가 거북이가 바다 표면으로 고개를 내밀 때 나무구멍 위로 목이 쭉 나오게 되면 매우 편안하게 목이 걸치게 되므로 그때 숨을 쉰다는 것이다. 이것이 눈먼 거북이가 구멍 뚫린 나무판자를 만나(盲龜遇木)라는 설화이다. 망망한 대해에서 눈먼 거북이가 나무판자 만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처럼, 사람이 불법을 만난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금세 꼭 깨달아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비유를 들은 것이다.

학인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주 선사의 견해를 물었다. 그러자 조주 선사는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생에 지은 복이 없으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듯이 불법을 만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전생에 작은 복이라도 지은 것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하니, 다른 생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현재 여기서 즉시 깨닫기를 바란다. 깨달음은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그대는 이미 부처이기 때문이다.

학승이 물었다.
“오랫동안 바위굴이나 산골짜기에 기거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왜 완전히 숨지 못하는가?”
問 久居巖谷時如何 師云 何不隱去

출가수행자가 된 사람이라면 복잡한 세속을 벗어나 산골짜기나 동굴에서 은신하면서 도를 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뜻은 가상하나 반드시 올바른 수행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매일 마을에서 음식을 빌어먹도록 당부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몸을 만들어준 부모님과 나에게 음식을 베풀어 주는 사람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도를 이루면 그들에게 좋은 진리를 설해주시어 나를 나이주고 먹여준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대승정신을 심어준 것이다. 그리고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는 언제든지 하루에 한 번씩 걸식하러 마을에 나오는 자식을 보고 안심하게 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교는 사회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은둔이 아닌 대중 속의 불교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은둔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주 선사

의 이 질책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숨으려 한들 네 몸이 있는 이상 이 세상에서 완전히 숨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책에는 많은 뜻이 들어있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예배이다.”
학승이 앞으로 나아가 무어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조주 스님은 사미(沙彌) 문원(文遠)을 불렀다. 문원이 오자 스님은 꾸지람을 하면서 말했다.
“아까는 어디에 갔다 왔는가?”

問 如何是佛法大意 師云 禮拜著 僧擬進語次 師喚沙彌 文遠 文遠到 師叱云 適來去住?處來

무엇이 불법의 큰 뜻인가 묻자, 조주 스님은 주저 없이 ‘예배’ 라고 대답했다. 불교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 예배는 임문자의 첫 수행이고, 결국 마지막에 고승이 되어도 일체 중생에게 ‘예배’ 하면서 끝을 맺는다. 누구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는 이미 부처이다. 그런 부처에게 끝없이 서로서로 예배하고 깨닫고 존중하는 정신이 불교이다. 조주 스님이 학승이 하려는 말을 중단시키면서 문원을 향하여 탄 것하는 말을 한 것은 학승에게, “이의 특별한 은혜가 없다. 이것이 불교야. 더 이상 말하지 마!”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⑩



죽음의 길에 있으면서도 태평하다 (붓다차리타)

죽음, 아, 죽음, 한숨부터 나오지 않는가. 언젠가는, 한번은, 우리에게 닥쳐오야 말 쫘나미(津波).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이런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 쫘나미에서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고, 누구도 이겨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지엄(至嚴)한 진리이자, 자연의 이치이다.
흔히 죽음이 없다면, 종교는 없을 것이라 말하지만, 이는 불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아니 불교야말로, 바로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태어난 종교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그래서 불교를 낳은 어머니라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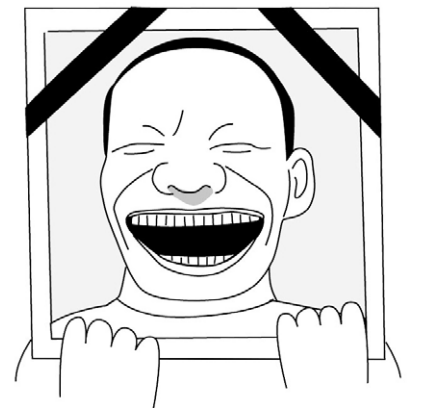
이 죽음을 우리의 부처님께서는 언제 인지했을까? 내 생각에는, 어머니의 죽음으로부터 인지했으리라 본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겨우, 신타르타 태자가 이 땅에서 호흡하기 시작한 7일만의 일이었다. 그때는 아직 아무 것도 알 수 없었으리라.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한 소녀의 마음자리 한 구석에는 어머니의 빈자리가 점점 더 크고도, 아들에게 지리했을 법하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죽음이 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의 좁은 견문 탓인지 잘 보지 못했다. 그 대신에 등장하는 것이 4대문 밖에서 만난 그 모습들이다. 이른바 사문유관(四門遊觀)이다. 어쩌면 어머니의 죽음과 같은 여렸을 적 체험, 혹은 상처들까지 다 투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늙음, 병자, 죽은 자를 만나고 또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수행자를 만나는 이야기를 통하여, 신타르타 태자가 제기하는 의문은 이러한 고통이 특정한 사람만이 겪는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물론 그렇지 않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대답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 늙음의 길에 있으면서도, 질병의 길에 있으면서도, 마침내는 죽음의 길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붓다차리타(Buddhacarita, 佛所行讚)>에서는, 이때 신타르타 태자가 어떻게 한탄하고 있는지를 잘 전하고

있다.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은 저만치 던져버리고 흥겨워 한다. 사람들의 마음은 참으로 무디구나. 죽음의 길에 있으면서도 태평하다.”
사람들이 부르는 태평가(太平歌)는 죽음을 건넌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 죽음을 외면하고, 죽음을 저 멀리 밀쳐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이다. 하긴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살아간다.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이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말할 사람도 적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삶의 무게가 가벼워질 것인가? 그것은 아니리라.



오히려 죽음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우리 삶의 무게를 줄여줄 수 있는 묘약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 우리는 누구나 죽는다. 어차피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가 공공대고 있던 문제들이 조금은 가볍게 다가올는지 모른다. 나의 이 고통과 고뇌가 죽음보다 더 심각한가? 이렇게 물으면서 삶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찾게 되리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리라. 모든 삶의 문제를 이 죽음이라는 지를 위에 올려놓고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죽음’이라는 화두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늘 머리에 “나는 죽는다!”라고 씌어있는 띠 하나씩 동여매고 있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삶에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죽음에서 삶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5>

사성제-고제(苦諦)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사람, 자식이 명문대에 합격한 사람, 한 달 전에 산 주식이 10배 올랐다고 기뻐하는 사람, 사랑하는 이와 결혼식을 올린 사람에게 ‘모든 것은 고통이다’라는 말은 잔치 상에 찬물 끼얹는 소리처럼 들릴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찰나이고 삶은 끊임없이 변해간다. 만년 과장으로 있다가 명퇴당할 수 있고, 명문대 졸업해도 취직 못할 수 있고, 사농은 주식 휴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 살아가면서 잔칫날이 며칠이나 되겠는가? 먹고 살 걱정, 자식 걱정, 나이 들어 이젠 몸까지 아파오고 이빨도 약해져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며 온갖 망상이 자신을 괴롭힌다. “왜 그때 그렇게 못했을까?”, “10년만 젊었어도...” 그러나 아무 것도 되돌릴 수 없다. 무명(無明)에 쌓인 어리석은 중생은 과거로 돌아가도 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할 것이다. 인과(因果)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고제(苦諦)이다. 고제는 이러한 삶의 고통이

인과 · 제행 무상 모르는데서 생기는 고통

진리로서 냉엄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그저 가만히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에도 고통의 진리는 오자 없이 작동하고 있다. 태어난 자는 매순간 붕괴돼 가고 있다.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다.

고제의 ‘고’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국한된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의 가르침에 입각한 고통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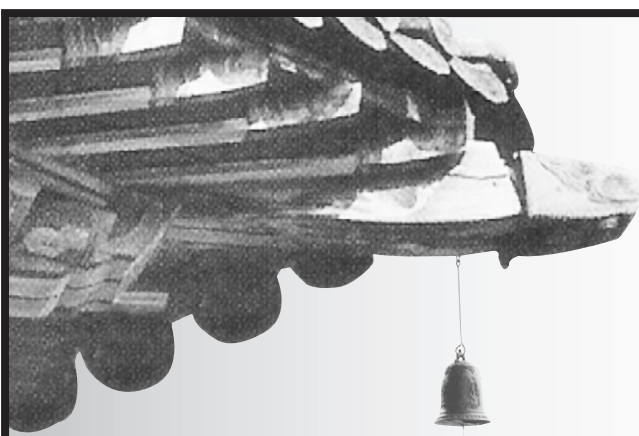
부처님은 고제를 여덟가지로 분류해 설했다. 먼저 생고(生苦) · 노고(老苦) · 병고(病苦) · 사고(死苦)의 네 가지 고통이 있다. 여기서 ‘생’은 ‘살아가는 고통’이 아니라 ‘태어나는 고통’을 말한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처음으로 폐로 숨 쉬는 과정을 겪으며 고통을 느낀다고 한다. 또 태어났다는 것은 전생의 과보를 받고 인과계에 들어선 것이 되므로 윤회의 출발점이 된다. 그렇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필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태어나는 고통’ 속에는 ‘살아가는 고통’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애별이고(愛別離苦)와 원증회고(怨憎會苦)가

있다. 애별이고는 사랑하는 사람, 같이 있고 싶은 사람과 생이별 혹은 사별하거나 애착하는 물건 등을 분실 또는 빼앗기는 고통을 말한다. 원증회고는 원망하고 증오하는 사람과 함께 있거나 혹은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을 뜻한다. 다음은 구부득고(求不得苦)가 있다. 말 그대로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생기는 괴로움이다. 돈, 명예, 권력 등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이 느끼는 고통이다.

마지막으로 오취운고(五取蘊苦)가 있는데 색(色) · 수(受) · 상(想) · 행(行) · 식(識)의 오운(五蘊)을 만족시키고 싶다는 욕망에서 오는 고통이다. 즉 물질[色], 외부의 자극을 감각 신경이 받아들이는 작용[受], 외부 세계의 대상을 마음 속에 나타내는 작용[想], 그 밖의 여러 마음의 작용[行], 인식하고 판단하는 작용[識]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서 오는 괴로움이다. 좋은 것만 갖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것만 느끼며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로병사와 애별이 · 원증회 · 구부득 · 오취운의 여덟 가지 괴로움을 합쳐 사고팔고(四苦八苦)라고 부른다.

前 본지기자



빙의(귀신병) · 신병 · 퇴마 천도제 전문도량



매월 지장재일은 무보시 천도제

우울증,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증가,
약물게임중독, 전생체험

- 교육생수시모집 -
최면술, 퇴마술, 기공술, 자극요법술

한국빙의 · 퇴마 · 최면연합회본부
한국근본불교조계종총무원 / 송림사 주지 현오 합장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 상담전화 02)357-4554 / 010-5656-3915

포교원(금)안내

- 위치: 부산시 북구 화명동 소재
- 화명지하철역 1분거리 • 3층 50평
- 가액: 전세 2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9229-3801

NAVER D.O.M 에서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